

2. 구조기능주의

- 기능주의
 -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
 - 의도하지 않은 결과
 - 구조기능주의 비판
 - 신기능주의
 - 체계 기능주의
-

기능주의

- **기능**(function)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수행하는 성질 또는 존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심장은 신체의 혈액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 **기능주의**(functionalism)는 사회 체계와 유기적 체계 사이의 비유를 토대로 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뒤르켐과 파슨스의 이론과 관련 있다.
 - 기능주의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회 제도가 사회 전체의 원만한 유지가 가능하도록 임무를 수행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가족과 사회 성원의 재생산을 담당하고, 학교는 사회화와 교육,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뒤르켐과 기능주의

- 뒤르켐은 ‘사회적 사실’(Fait Social)이 개인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았으며, 다른 사회적 사실과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사실을 분석하는 것은 심리학이나 다른 차원으로 환원할 수 없으며, 사회학자는 사회의 논리 자체를 찾아야 한다.
 -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사회학자는 사회의 행위자들이 말하는 답변을 무시하고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감추어진 설명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현대 사회학에서 기능주의(Functionalism)라고 부르는 방법과 유사하다.
 - 뒤르켐은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사회적 합의와 사회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 저서인 [자살론(1897)]에서 자살은 개인적 행위로 보이지만 자살을 강제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말리노프스키의 기능적 설명

- 폴란드 출신 영국 인류학자 말리노프스키(Bronoslaw Malinowski: 1884-1942)는 1914-18년 동안 뉴기니 트리브리안드 섬에서 참여적 관찰을 통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
 - 그는 **문화**를 물질적, 행동적, 정신적 복합체로 보면서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주의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 그는 부족들이 하얀 조개 팔찌와 붉은 조개 목걸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사실을 주목했다. 부족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교환관계**를 ‘쿨라 환형(Kula Ring)’이라고 불렀다. 쿨라는 경제적, 물질적 교환과 관련이 없고, 비물질적, 문화적 교환의 성격을 가졌다.
 - 그는 부족들이 교환하는 선물의 기능은 부족의 사회적 연계를 “보여주고, 공유하고, 기여하고, 창조하려는 근본적 추진력”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선물 교환은 부족의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

기능주의적 분석

- 기능주의적 분석은 사회가 하나의 체계(System)이며, 사회적 현상은 사회 자체의 기능이라고 본다.
 - 하나의 기능(Function)은 사회의 체계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분명하거나 불명료하다.
 - 그러나 사회 행위자의 행동은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위하여 기능을 한다고 본다.
-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

-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미국 사회학자 파슨스(Talcott Parsons, 1902-79)는 뒤르켐, 베버 등 유럽의 사회학을 도입하여 새로운 사회학 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 그는 미국 암허스트 칼리지에서 생물학, 철학을 전공했으나, 런던정치경제대학(LSE)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인류학과 사회학을 공부했다. LSE에서는 말리노프스키의 기능주의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하이델베르크에서 사회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 파슨스는 하버드대학교에 경제학 강사로 부임했으나, 신고전파 경제학에 비판적이었으며, 수학과 통계에 치우친 연구와 거리를 두고 사회학 이론의 탐구에 관심을 가졌다.
 - 그는 1931년 소로킨의 주도로 사회학과가 창설된 후 교수로 부임하였고, 1950년대 미국 최고의 사회학자로 일컬어졌다. 파슨스의 사회학 이론에 관한 방대한 저작들은 나중에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 이론으로 체계화되었다.
-

파슨스와 베버

- 1950년대 대표적인 미국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 1902-79)는 1930년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유학하며 알프레드 베버를 만나고 신칸트 학파와 베버의 사회학을 알게 되었다.
 - 파슨스는 ‘최근 독일 문헌의 자본주의의 개념’ 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베르너 쾰바르트와 막스 베버의 논쟁에 초점을 맞췄으며, 베버의 신칸트학파 관점을 지지하였다.
 - 파슨스는 종교사회학과 칼빈주의에 큰 관심을 가졌다.
 - 미국에서 베버의 사회학은 마르크스 이론을 비판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파슨스와 슈츠(Afred Schutz)는 베버의 주관적, 의식적 측면을 강조했다.
-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

-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는 기능주의보다 더 체계적인 이론으로 사회학, 인류학, 비교정치학에서 사용된다.
 -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는 전반적 구조의 작동을 위해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사회 체계**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형식적 차이를 비교한다. 대표적으로 종교와 의식은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설명된다.
 - 파슨스는 사회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정한 형태를 유형변수(pattern variable)이라고 불렀다. 뒤니스의 사회 분류 형태인 ‘공동사회’와 ‘결사체’에서 유형 변수의 개념을 착안했다.
-

<사회적 행위의 구조>, 1937

- 파슨스는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적 견해에 반대하고 주의주의적 행위 이론(voluntaristic theory of action) 을 제시하였다.
 - 사회 구성원이 수용한 공통적 규범과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사회시스템>, 1951

- 파슨스는 **행위 동기와 가치**를 인지적, 심미적, 평가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파슨스는 행위자가 동기와 가치에 의해 상황 지향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베버의 유형론적 접근의 영향을 받아 행위 **유형**(pattern)을 도구적, 표출적, 도덕적 행위로 구분하였다.
 - 지향적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제도화되고 지위, 역할, 규범의 **사회체계**(social system)가 형성된다.
 - **행위체계**(action system) 사이의 통합은 **문화체계**, **사회체계**, **인성체계**(personality system), **행동 유기체**(behavioral organism) 등 4개의 하위 행위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 인성체계가 사회체계로 통합되는 메커니즘으로 **사회화**(socialization)와 **사회통제**(social control)를 제시한다.
-

행위체계의 4가지 요소(AGIL)

- **적응**(Adaptation): 환경으로부터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자원을 체계 전역에 분배한다.
 - **목표 성취**(Goal attainment): 체계 목표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성취가 가능하도록 체계의 자원을 동원한다.
 - **통합**(Integration): 체계 단위 사이의 존립 가능한 상호관계를 조정하고 유지한다.
 - **잠재성**(Latency): 유형 유지(pattern maintenance)와 긴장 관리(tension management)를 포괄한다.
-

체계와 하위체계

- 구조(structure)는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기능적 결과에 의해 생겨난다.
 - 모든 하위체계는 네 가지 기능적 부문(functional sector)으로 분화될 수 있다.
 - 체계와 하위체계(subsystem)의 교환이 발생한다.
 - 문화체계는 유형 유지 기능, 사회체계는 통합 기능, 인성 체계는 목적 달성 기능, 행동 유기체는 적응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

사회체계

- 사회학의 중심 연구 대상은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체계**이다.
 - 사회체계의 네 가지 **하위 부문**은 적응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 목적 달성을 담당하는 정치, 통합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 공동체, 유형 유지를 담당하는 문화이다.
 - **경제**의 적응 기능은 화폐 수단을 사용해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정치**의 목적 달성 기능은 정부(또는 다른 집합체)가 권력수단을 사용해 성원의 행위를 구성하는 결정을 내리고, 징벌을 내리며, 자원을 동원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사회** 공동체의 통합 기능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는 영향력을 수단으로 삼아 행위자들이 사회 규범에 충성하고, 서로 조정하여 조화를 유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문화**의 유형 유지 기능은 성원이 사회의 핵심 가치에 헌신하고 양심을 가지고 위반시 죄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활동을 포함한다.
-

진화주의적 관점

- 파슨스는 인간사회가 원시(primitive), 중간(intermediate), 현대(modern) 사회의 세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현대 사회 유형은 오직 기독교에 기원을 둔 서양의 진화 과정에서 출현했다고 분석하였다.
 - 현대사회를 향한 진화 과정은 사회체계의 네 가지 하위 부문의 미분화되어 서로 융합된 상태에서 **분화**(differentiation)되는 과정이다.
 - 분화는 사회체계에서 한 단위 또는 구조가 체계를 위한 기능적 중요성에서 다른 둘 이상의 단위나 구조로 분리되는 것이다.
 - 분화의 증대는 환경에 대한 사회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 분화와 적응 능력의 향상은 **가치 일반화**(value generalization)를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새로 분화된 단위가 큰 갈등 없이 포용된다. 가치는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궁극적 요소이다.
-

가치 일반화

- 파슨스에 따르면 가치 일반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를 향한 변화이다.
 - 감정성(affectivity)에서 **감정 중립성** (affective neutrality)을 향한 변화를 수반한다. 행위자는 많은 경우 만족-규율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감정성은 만족을 중립성은 규율을 지시한다. 대체로 만족 지향은 특수주의 가치 지향, 규율은 보편주의 가치 지향을 가진다.
 - 행위자의 특성을 강조하는 귀속성(ascription)에서 수행을 강조하는 **업적**(achievement)의 가치를 향한 변화를 수반한다.
 - 행위자의 역할을 다른 행위자와 융합시켜 규정하는 확산성(diffusion)에서 분리시켜 정의하는 **특정성**(specificity)를 향한 변화를 수반한다.
 - 서구 사회는 가치 일반화에 성공하여 **현대사회**로 진화하였다.
-

유대-기독교 전통과 가치 일반화

- 파슨스는 **가치일반화**에 기여한 유대-기독교 전통을 강조하였다.
 - 초월적 유일신을 신봉하고 신 앞은 모든 개인은 전적으로 평등하다.
 - 법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으로 통해 신에 대한 숭배보다 십계명을 표현된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자원 결사체로서 교회는 귀속 공동체에서 독립된 동등한 개인의 결사체이다.
 - 신의 도덕 명령을 수행하려는 도덕적 소명 의식은 세계 정복의 행동주의 인간을 만든다.
 - 종교개혁, 특히 칼빈주의는 현대사회의 보편주의, 감정중립성, 업적, 특정성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파슨스, <현대사회들의 체계>, 1971)
-

구조기능주의의 이론적 명제

- 사회는 전체이며, 상호 관련된 부분들의 체계이다.
 - **체계**(system) 개념은 모든 형태의 사회학적 기능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체계가 갖는 욕구에 관련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 필수요건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의 모든 부분 -하위체계-의 통합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 이탈, 긴장 등 역기능이 존재하지만, 점차 사회의 **통합**과 **균형**의 방향으로 제도화되거나 해소된다.
 - **사회변동**은 적응적이고 점진적이다.
 - **사회통합**은 보편적으로 가치 합의, 공유된 인지 지향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 경제, 정치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지배적 원리 체계를 통해 성취된다.
-

(1) 역할 이론

- 파슨스는 어린이 단계에서 성적 역할의 내재화(Internalization)가 이루어지고, 성인이 되어 가정생활에서 노동의 분업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 파슨스는 전통적인 역할(Role)이론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적 역할이 도구적이라고 설명했다.
 - 기능주의는 성적 역할이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가족은 영구적인 사회제도로서 가족 내 남편과 아내의 성별분업은 기능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 이러한 성적 역할에 관한 이론은 남녀가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역할 이론은 남녀 사이의 권력과 불평등성을 위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1970년대부터 남녀의 역할은 생물학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화의 결과라고 보는 사회학이 주류가 되었다.
-

(2) 조직 이론

- D. 카츠와 R. 칸도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를 기반으로 조직의 균형을 설명하는 <조직의 사회심리학(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1966)을 출간하였다.
 - 카츠와 칸은 조직이 내부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동태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을 유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생물체가 가지는 특유한 항상성의 기능을 인간 조직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한다.
 - 이러한 기능적 설명은 정태론(statics)의 특징을 가지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의 구조나 기능이 변화하거나 혁신하는 동태적 적응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

(3) 불평등 체계의 이론

- 파슨스는 사회체계가 4가지 하위체계인 친족, 사회계층, 권력, 종교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 친족체계는 사회화의 동인이며, 계층은 분화된 사회구조에서 보상을 분배하는 수단이다. 두 하위체계는 사회의 불평등 유형을 강화한다.
 - 킹슬리 데이비스와 월머트 무어는 한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 사회계층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Davis and Moore, 1945). 불평등한 보상체계를 가진 사회계층이 오히려 사회의 “기능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가장 힘든 일은 가장 높은 보상을 받는 사회체계가 개인이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촉발할 것이라고 보았다. 역할이 수행되면 유기적 연대가 형성되면서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 관점은 계급체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

(4) 갈등과 균형

- 파슨스는 현대사회의 **갈등**의 현실적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계급갈등은 분명히 존재하며…계급갈등은 우리의 현대산업사회 유형에 고유한 것이다”.
 - 그러나 기능주의 이론에서 **계급갈등**은 지배적인 구조적 요소가 아니다. 갈등은 변동의 원인이 아니라 불평등에 대한 일탈적 반응에 불과하다.
 - 파슨스의 **균형** 모형은 권력과 갈등의 중요성을 최소화한다.
 - 파슨스는 생물학적 비유를 사용해서 유기체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 따로 있고, 병리현상을 다루는 이론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5) 혁명에 관한 이론

- 기능주의 이론은 주로 혁명의 원인과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 미국 사회학자 데이비스(J. C. Davis)는 ‘기대 상승의 J 곡선 이론’을 통해 혁명이 절대적 박탈감의 상황이 아니라 경제 번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가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의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사회학자 T. R. 거(Gurr)는 기대 상승과 악화되는 현실을 상대적 박탈감의 이론과 결합했다. 이러한 이론은 사회적 차원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그 성원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혁명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 사회적 불균등과 기대의 상승,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강조하는 이론은 혁명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설득력은 있으나 혁명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설명력이나 예측력은 그리 높지 않다.
-

(6) 사회변동과 균형

- 사회를 복잡하고 서로 연결된 기능의 한 유형으로 본다면, 사회 변동은 **균형**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실업의 발생은 복지국가를 만들고, 다른 인종들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입법 제안을 이끌 수 있다.
- 특별한 사회변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기능주의 이론은 사회변동을 사회 유기체 내부의 실패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으로 해석한다. 사회변동의 두 개의 균형상태의 사회 사이의 일시적 과도기에 불과하다. (엘리아스, 1968; 엘레아 학파의 ‘움직이지 않는 화살’ 가설)
- 기능주의적 해석은 사회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변동이 발생한다고 보며, 개인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안정적인 사회의 **현재상태**(status quo)를 상정하는 보수적 시각을 가진다. (19세기 사회학자는 장기적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20세기 구조기능주의에서 장기적 사회과정 연구는 사라졌다)

사회적 진보의 한계

- 파슨스의 기능주의 사회학과 ‘사회체계’ 이론이 전제하는 기본적인 가정은 과학을 통한 인류의 진보이며, 미래 사회를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 이러한 사고는 19세기의 낙관적, 합리주의적, 특히 물질주의적 사고와 유사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사회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에 관한 기능주의 이론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 20세기 인류 문명이 만든 인구 과잉, 소비의 증가, 핵무기의 개발, 환경 파괴, 기술 변화는 ‘진보의 함정’(progress trap)이 되어 점점 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

구조기능주의 비판

- 사회의 균형과 진화적 발전을 강조하는 구조기능주의는 갈등과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스카치폴).
 - 구조기능주의가 보수적이며(골드너), 몰역사적이고,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강제에 몰두하며, 엘리트를 옹호한다고 비판하였다.
 - 구조기능주의가 목적론적이고, 동어반복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하버마스는 파슨스의 시스템 이론은 기계적이고, 실증적이고, 반개인주의, 비인간화 성격을 가진다고 비판했다
 - 1960년대 신사회운동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사회학 조류가 구조기능주의 이론에 도전했다. 갈등이론, 마르크스주의, 현상학, 민속학 방법론, 교환이론은 사회학 이론을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 사회학 이론의 지배적 패러다임(paradigm)이 사라지는 대신 ‘**방법론적 다원주의**(methodological pluralism)’가 정립되었다.
-

기능주의 이론의 대응

- 머튼의 중범위 이론
 - 알렉산더의 신기능주의
 - 루만의 체계기능주의
-

머튼의 중범위 이론

- 머튼은 파슨스의 개념적 구성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경험적 실재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였다.
 - 머튼은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을 제시하고 ‘역할모델(role model), 일탈행동(deviant behavior),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 머튼은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이 개인들의 행위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개인이 스스로 소속감을 가지며 특정한 집단규범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 그 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이라고 부른다.
-

의도하지 않은 결과

- 기능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일부 사회학자는 기능의 의도와 결과가 다른 현상에 관심을 가졌다.
 -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는 원래는 다른 목적을 가진 행동이 야기한 결과를 가리킨다. 사회적 효과가 행위자의 의도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차원이다.
 - 미국 사회학자 머튼(Robert K. Merton)은 『사회이론과 사회구조(*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1957)』에서 현대 사회의 관료제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조직의 경직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표현했다.
 - 머튼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만드는 **표면적 기능**(manifest function)과 사람들이 인지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기능**(latent function)을 구분했다.
-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 **역기능**(dysfunction)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제도와 기구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과를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관료제는 문서를 통한 업무를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직이나 불필요한 서류를 증가시키는 형식주의를 만들기도 한다.
-

제프리 알렉산더의 신기능주의

-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 이론이 대응하지 못한 비판사회이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응답하려고 노력하였다.
 - 파슨스가 체계와 기능적 부문의 교환 또는 기능적 요건을 강조한 데 비해, 알렉산더는 체계와 하위체계의 **다차원성** (multidimensionality)을 강조한다.
 - 알렉산더는 분화된 하위체계 내부와 하위체계들 사이의 긴장과 새로운 형식의 갈등이 출현한다고 본다. 그는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갈등의 양이 증가할 수 있으나, 갈등의 범위는 전체 사회로 일반화하지는 않는다고 암시한다.
 - 갈등은 적대적 물질적 이해관계만으론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갈등은 **자율적 문화적 구조**에 의해서 유형화된다.
 - 문화적 구조는 개념과 대상을 상징적 유형으로 조직화하고, 이들을 기호(sign)로 전환한다. (예: 1970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

루만의 체계기능주의

- 루만(Nicholas Luhmann)은 인간 행위가 체계로 조직되고 구조화되었다고 보며, **일반체계**(general systems) 접근법을 선택한다.
 - 루만은 “사회학이 아무런 대안없이 고전적 체계이론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구조기능주의를 포기한 것은 이론기술적(theori technisch) 이유보다 이데올로기적 이유 때문이다.
 - 루만은 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한다. **사회체계**(social systems)의 세 가지 기본 유형은 상호작용 체계, 조직 체계, 사회적(socieital) 체계로 구성된다.
 - 단순한 사회에서 세 가지 체계는 서로 융합되어 있지만,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서로 분화되고 환원될 수 없다.
-

체계 과정

- 모든 사회체계는 각 행동 양식을 배치할 때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기반하고 있다.
 - 체계과정은 특징적 매체(사랑, 권력, 화폐)로 발전될 수 있으며, 성찰성과 자기주제화를 허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 발생한다.
 -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구조가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출현한다. 루만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과정을 분석한다.
-

요약

- 파슨스는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적 견해에 반대하고 주의주의 행위 이론을 제시하였다. 사회 구성원이 수용한 공통적 규범과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1960년대 이후 사회의 균형과 진화적 발전을 강조하는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사회의 갈등과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구조기능주의가 체계와 기능적 부문의 교환 또는 기능적 요건을 강조하는데 비해, 알렉산더의 신기능주의는 체계와 하위체계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을 강조한다.
 - 루만은 인간 행위가 체계로 조직되고 구조화되었다고 보며, **일반 체계**(general systems) 접근법을 선택한다.
-